

[녹색성장 및 환경경영 관련 설문조사 분석]

■ 설문조사 개요 및 방법

설문조사는 국내의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은 기후변화대응팀, 환경팀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팀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획 또는 재무담당 간부급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대상회사의 업종별 구분과 규모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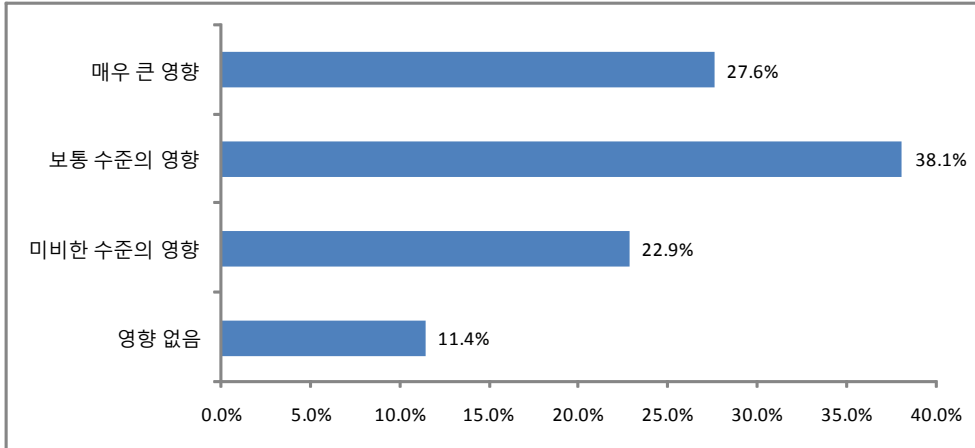
업종 구분	회사 수
에너지 및 자원	24
화학 및 제지	13
일반제조	23
건설	10
금융	12
서비스	23
합계	105

■ 설문조사 내용 분석

설문조사 질의 내용은 녹색성장 및 환경 경영과 관련하여 기업의 이해 정도 및 대응 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해 (1)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2)녹색성장과 환경경영전략, (3)기후변화와 기업의 의무, (4)환경경영 인프라 구축 및 (5)환경경영과 기업의 준비 등 5 가지로 구분하여 총 20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I.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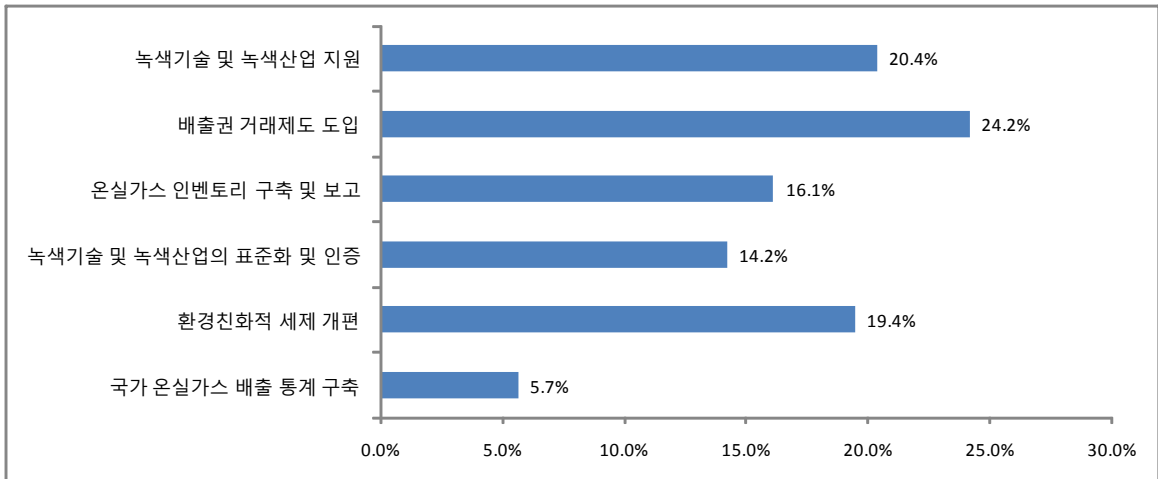
1. 녹색성장기본법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 영향의 정도



정부는 지난 1월 탄소배출규제와 투자를 위한 녹색성장기본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이 법의 실행으로 전체 응답 회사 중 65.7%의 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 반면 34.3%의 기업은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영향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자원, 화학 및 제지회사들의 절대다수인 96% 정도가 녹색성장기본법이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금융, 일반제조, 건설 및 기타 서비스사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의 정도가 낮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측면에서 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한 기업들 중에서 17% 정도만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는 실정이며, 전담조직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는 5.8%에 그쳐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한 이해 및 대응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응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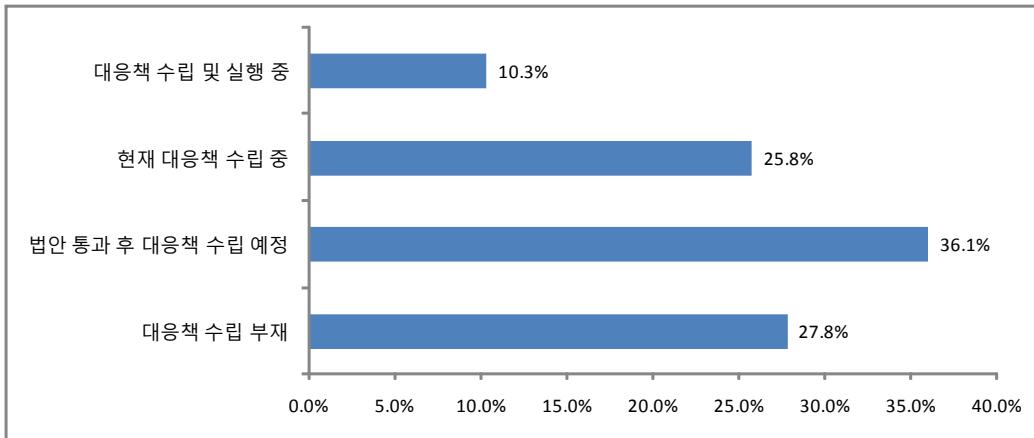
2. 녹색성장기본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대상분야



녹색성장기본법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회사의 24.2%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꼽았으나 녹색기술및녹색산업지원 및 환경친화적 세제 개편도 20% 정도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일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자원, 화학 및 제지회사들의 경우, 응답회사의 28% 정도가 탄소배출권거래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일 것이라 답하였으며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보고 분야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응답회사의 60%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지원이 회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금융회사의 경우 설문대상의 66.7%가 녹색성장기본법의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한 것을 고려하면 녹색금융이 금융회사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런 결과는 저축은행이나 신용카드사등 소매금융이 설문에 다수가 포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녹색성장기본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대응책 수립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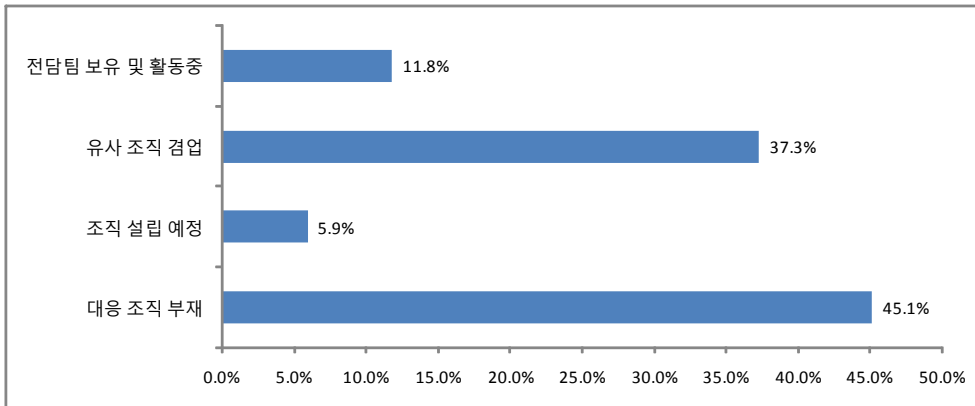


이 법을 위한 대응에 있었서는 전체 응답 회사의 36.1%만이 대응책을 수립하여 실행 중이거나 현재 대응책을 수립 중이라고 답하였다. 대응책 수립이 부재하다고 응답한 회사도 27.8%에 이르지만, 36.1%는 동 법안 통과 후 대응책을 수립할 예정이라 응답함으로써 상당수준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에너지/자원 및 화학/제지회사의 경우에는 65% 정도가 대응책을 실행 중이거나 수립 중이며, 대응책이 부재하다고 답한 회사는 5%에 불과하였다. 반대로 건설, 금융 및 서비스회사의 경우에는 42%가 대응책이 부재하다고 답하였으며, 13% 정도만이 현재 대응책을 실행하거나 수립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이 통과된 후 대응책을 수립할 예정이라 응답한 회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상당 부분 녹색성장기본법이 일반적인 내용만을 다루고 있고, 세부적인 실천방법이나 규제의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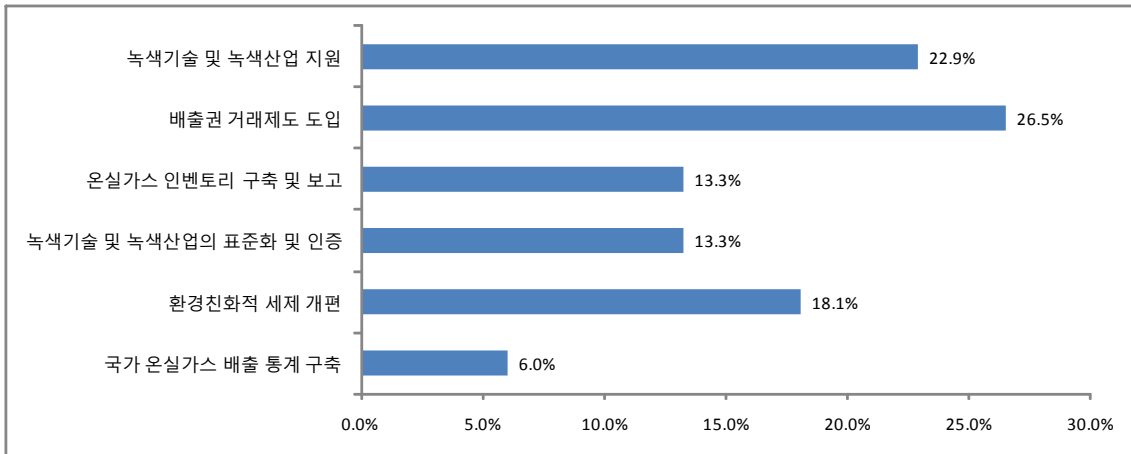
4. 녹색성장기본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대응책 조직의 구성 여부



전체 응답 회사 중 대응조직을 갖추고 있거나 대응조직을 설립할 예정인 회사는 17.6%로 아직 조직적 대응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7.3%의 회사는 유사조직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대응 조직이 부재하다고 답한 회사는 전체 응답의 45.1%로 나타났다.

대응 조직이 부재하다고 답한 회사 중 업종별로는 에너지, 자원, 화학 및 제지회사가 10%, 일반제조, 건설, 금융 및 서비스 회사가 64.4%로 업종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녹색성장기본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관심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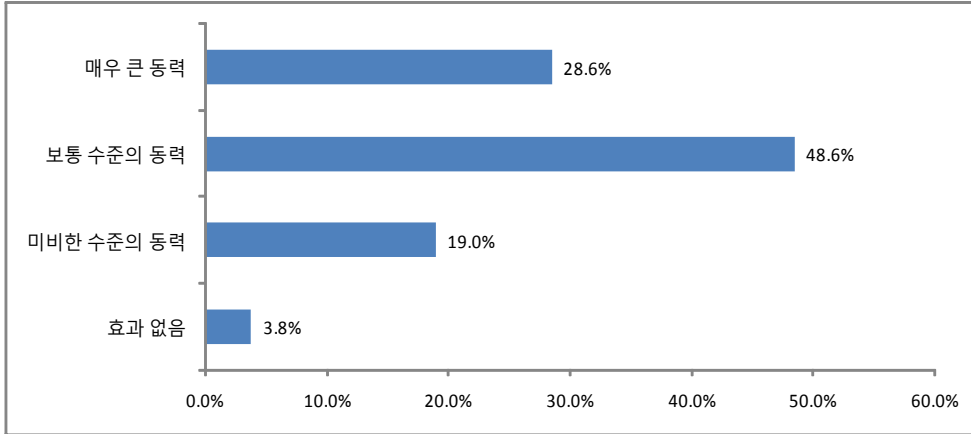


녹색성장기본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서 기업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동 법안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응답과 거의 동일하게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녹색기술및녹색산업 지원 및 환경친화적 세제개편이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 또한 2 번 문항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조사되었다.

기업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의 분야에 관심을 갖는 이유로 “RPS 및 의무감축량이 할당되게 되면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소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 놓이게 됨.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대해 최신기술 도입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예정”, “배출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탄소비용 증가로 전력수급영향 우려 및 배출권 구매비용 증대가 예상되나 정치적인 영향으로 전력요금이 동결될 경우 전력 공기업은 막대한 재정영향 예상” 및 “온실가스 총량제한 적용시 생산공정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제품 생산량 및 원가에 영향을 미치게 됨” 등이 주를 이루었다.

II. 녹색성장과 환경경영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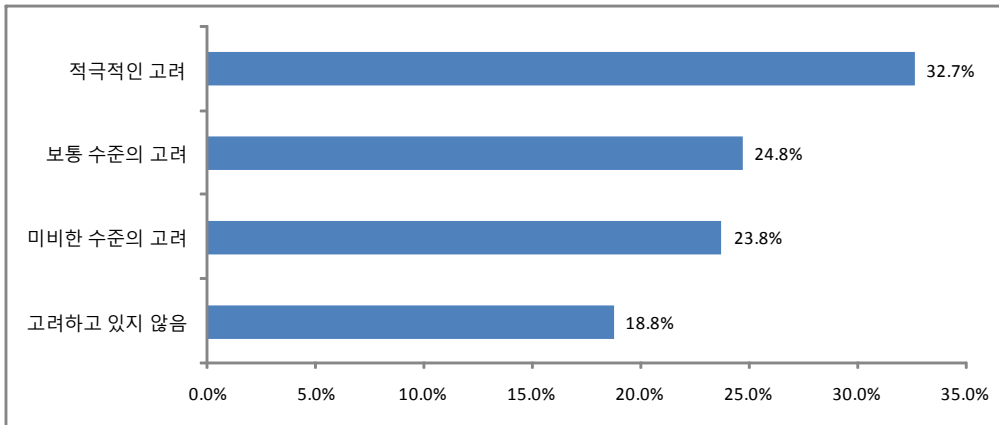
6. 녹색성장과 환경경영전략 – 녹색성장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 여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전체 응답 회사의 77.1%가 상당한 수준의 성장동력의 효과를 보여줄 것이라 응답하여 정부의 동 정책에 상당 수준의 기대를 하고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2.8%의 회사만이 녹색성장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미비한 수준이거나 효과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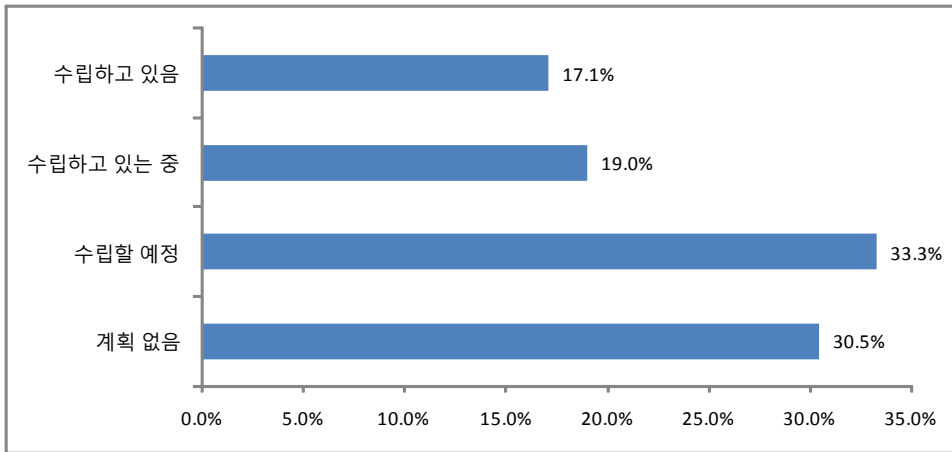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응답한 에너지/자원, 화학/제지 회사들의 90% 정도가 상당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전망하였으며, 일반제조, 건설, 금융 및 기타서비스 회사들의 경우는 38% 정도만이 상당한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전망함에 따라 녹색성장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대응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에 기인하여 상대적으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녹색성장기본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성장 고려 여부



저탄소 녹색성장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응답 회사들 중 회사의 입장에서 역시 성장동력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응답회사 중 32.7%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하였으며, 업종별로 에너지/자원 회사 및 화학/제지 회사는 각각 56.5% 및 61.5%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답하므로써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녹색성장기본법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환경경영전략 수립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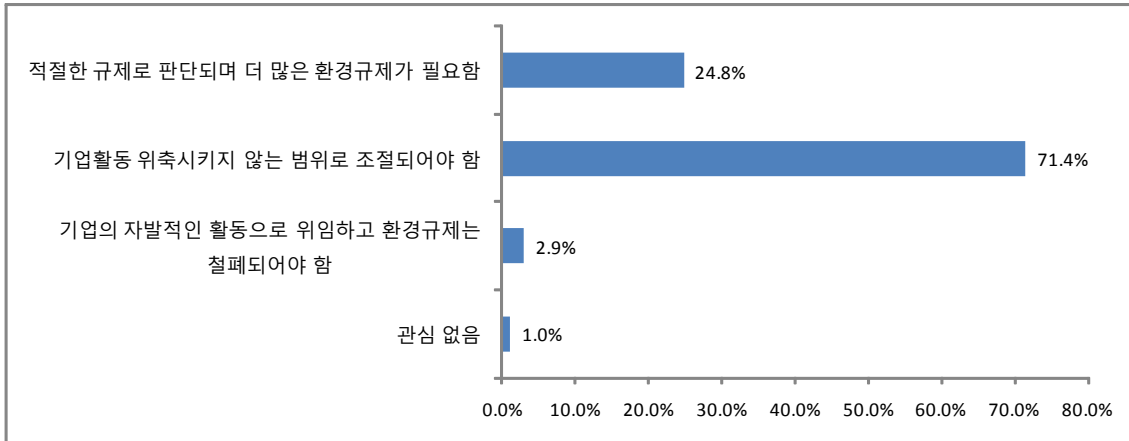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기업의 대응 방안인 환경경영전략 수립여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 회사 중 36.1%는 수립하였거나 수립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33.3%는 수립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획이 없다”라고 응답한 회사도 30.5%로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응답은 업종별로 대부분이 일반제조, 건설, 금융 및 기타서비스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너지/자원 및 화학/제지 회사의 경우에는 8%만이 “계획 없음”이라 답하였다.

6 번과 7 번항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성장에 대해 이해하고 대응 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였으나, 실질적인 환경경영전략의 수립은 현재까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III. 기후변화와 기업의 의무

9.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 환경규제의 적절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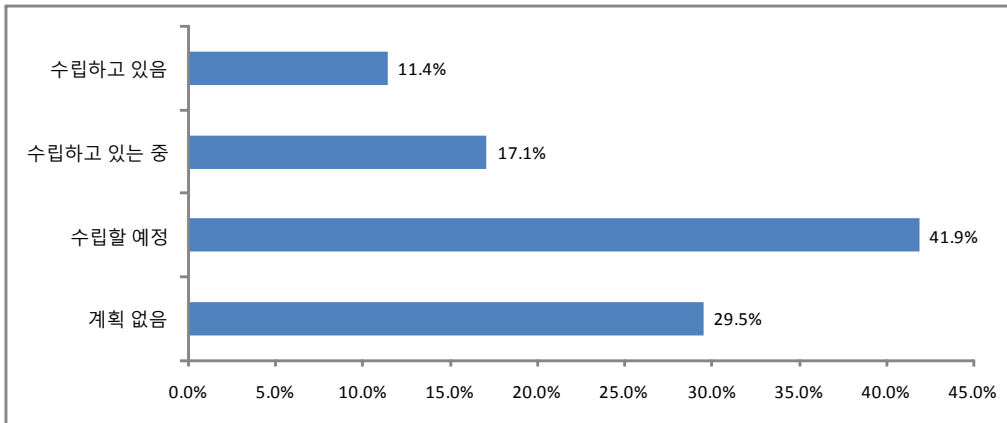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 회사의 대부분인 71.4%가 “환경규제가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로 조절되어야 한다”라고 답하였다.

업종별로도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나, 환경규제가 적절한 규제로 판단되며 더 많은 환경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회사는 일반제조, 건설, 금융 및 서비스 회사가 대부분으로 동 환경규제가 자신들의 회사에는 별 영향이 없음으로 인해 보다 엄격한 환경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규제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위임하고 환경규제는 철폐되어야 한다”라고 응답한 회사는 2.9%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회사는 환경규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적절성 또한 분담차원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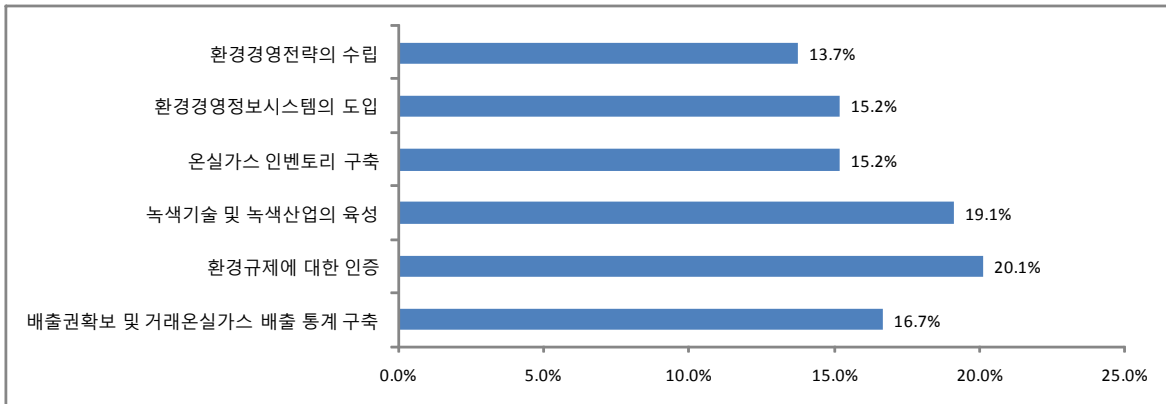
10.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 환경비용 대응책 수립 여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여부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 회사의 70% 정도가 수립하였거나 수립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획 없음”이라 응답한 회사는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획이 없다고 답한 대부분의 회사는 서비스 및 금융업종이었으며, 에너지/자원, 화학/제지회사의 경우에는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 환경비용 발생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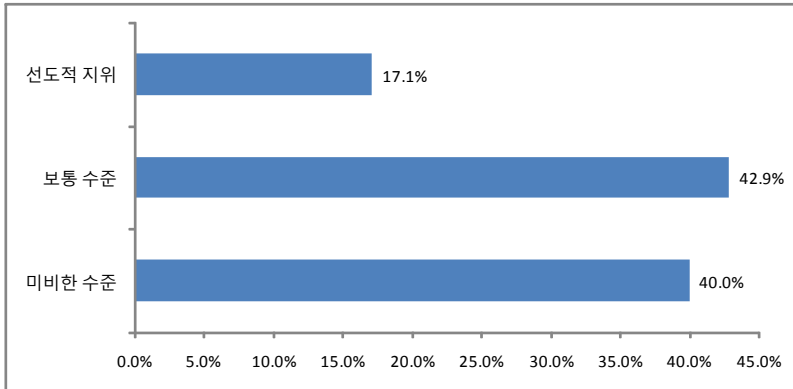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 어느 부문에서 주로 발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응답 회사의 40% 정도가 녹색기술및녹색산업의 육성 및 환경규제에 대한 인증 부문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답하였으며, 이 외의 부문에서도 응답회사들은 13~19%의 고른 분포로 답하였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로 야기되는 환경비용의 발생 분야는 어느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반적으로 고른 분야에서 발생할 것으로 조사 대상 회사들은 전망하였다.

IV. 환경경영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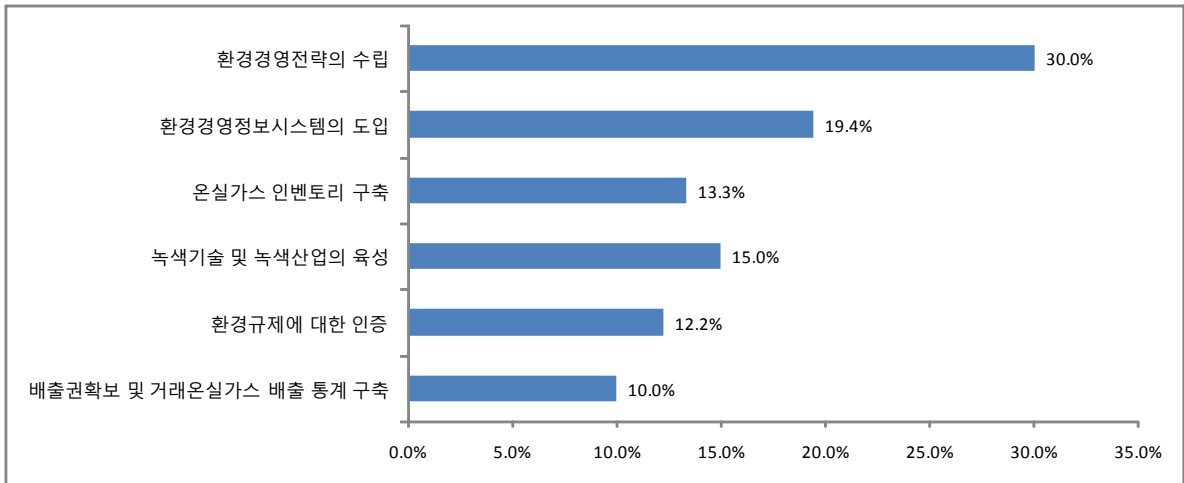
12.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 환경경영 인프라 구축 수준



회사가 속한 산업내에서 환경경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 회사의 83% 정도가 보통 수준 또는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답하였으며, 산업내에서 자신의 회사가 선도적 지위에 있다고 답한 회사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선도적 지위에 있다”라고 답한 회사는 대부분이 에너지 및 자원업종에 분포되었으며, “보통수준이다”라고 답한 회사 중에서도 에너지/자원 및 화학/제지 회사들이 일정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환경경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인식에 비해 실제적인 구축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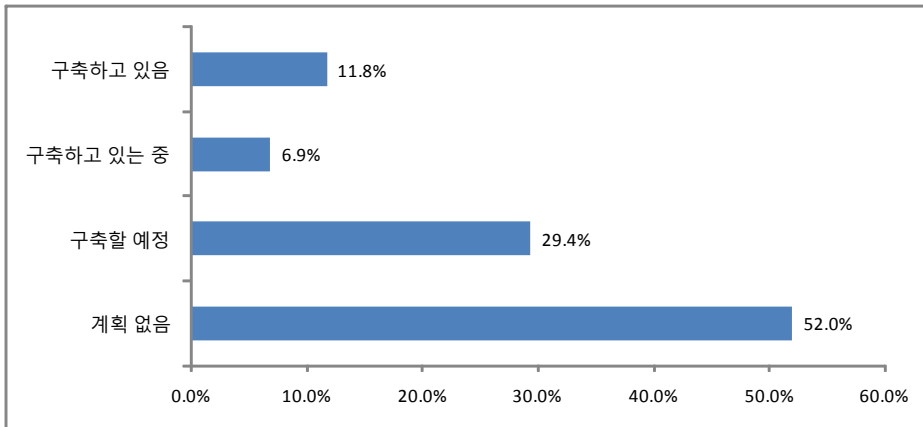
13.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 환경경영 구축 우선 분야



환경경영을 위해서 회사에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 회사 중 30%가 환경경영전략의 수립을 꼽았으며, 환경경영정보시스템의 도입이 그 뒤를 이었다.

환경경영전략의 수립을 최우선으로 답한 회사들의 경우 업종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전체 조사 대상 회사 중 15%는 무응답으로 답하였고, 이들 회사의 업종은 대부분이 일반제조업 및 서비스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14.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 환경경영정보시스템 또는 유사 IT 솔루션 구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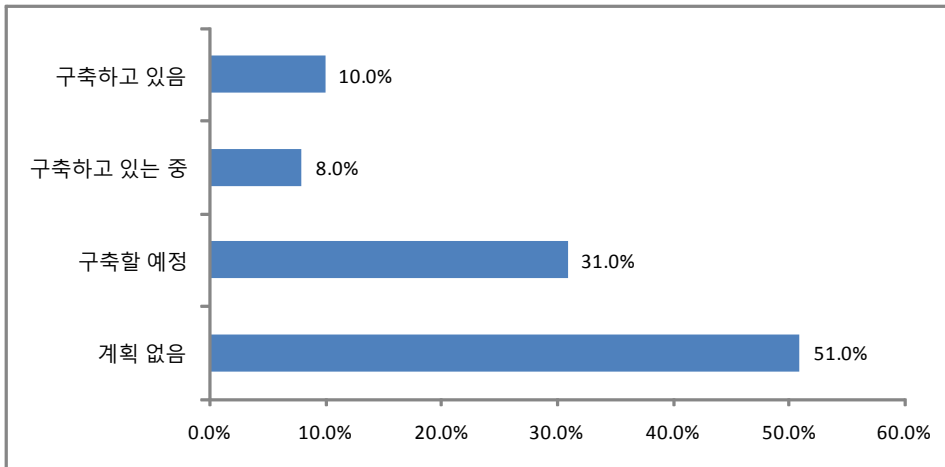


환경경영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유사한 IT 솔루션을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52%가 “계획 없음”이라 답함으로써 역시 필요성의 인식에 비해 실제적인 대응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 중이거나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한 회사는 48% 정도에 달하였으며 대부분이 에너지/자원 및 화학/제지 업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환경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 수준은 에너지/자원 및 화학/제지와 일반제조, 건설, 금융 및 서비스업종이 양분되어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보고 체계 구축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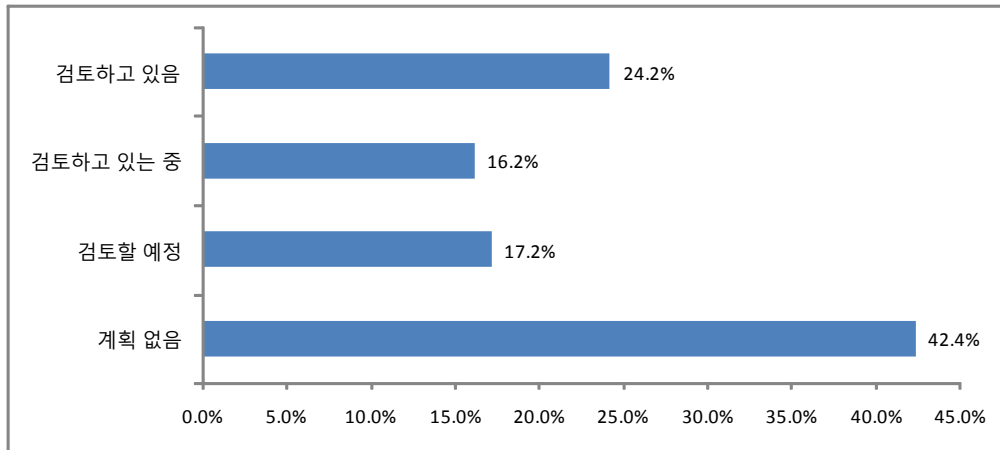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4 문항과 유사하게 51%가 “계획 없음”이라 답함으로써 역시 필요성의 인식에 비해 실제적인 대응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축 중이거나 구축할 예정이라고 답한 회사는 49% 정도에 달하였으며 대부분이 에너지/자원 및 화학/제지 업종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보고 체계 구축 수준은 에너지/자원 및 화학/제지와 일반제조, 건설, 금융 및 서비스업종이 양분되어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 온실가스 저감사업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검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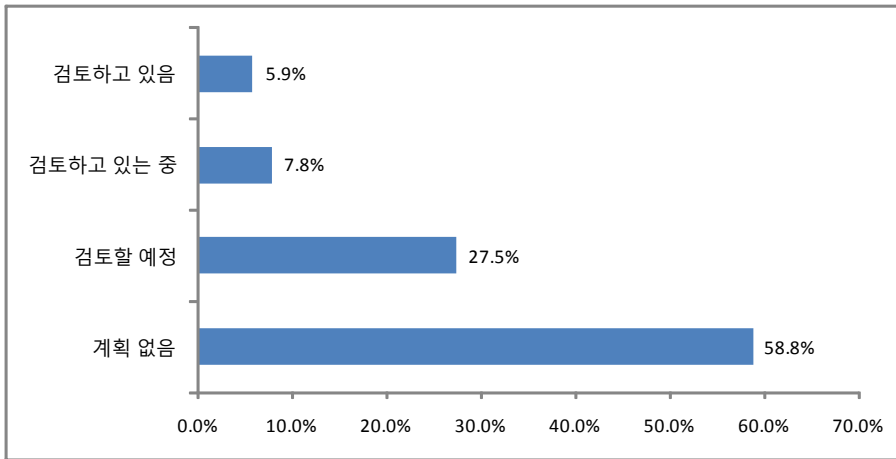


온실가스 저감사업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검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42.2%가 “계획 없음”이라 답함으로써 역시 필요성의 인식에 비해 실제적인 대응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4 및 15 문항에 비해서는 검토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 및 15 문항에 비해 검토할 예정이라 답한 회사는 전체 응답 회사 중 17.2%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기 검토하였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한 회사가 40.4%에 달하여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계획에 따라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경험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업종별로 온실가스 저감사업 또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검토 여부는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자원 및 화학/제지와 일반제조, 건설, 금융 및 서비스업종이 양분되어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 탄소펀드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금융 투자계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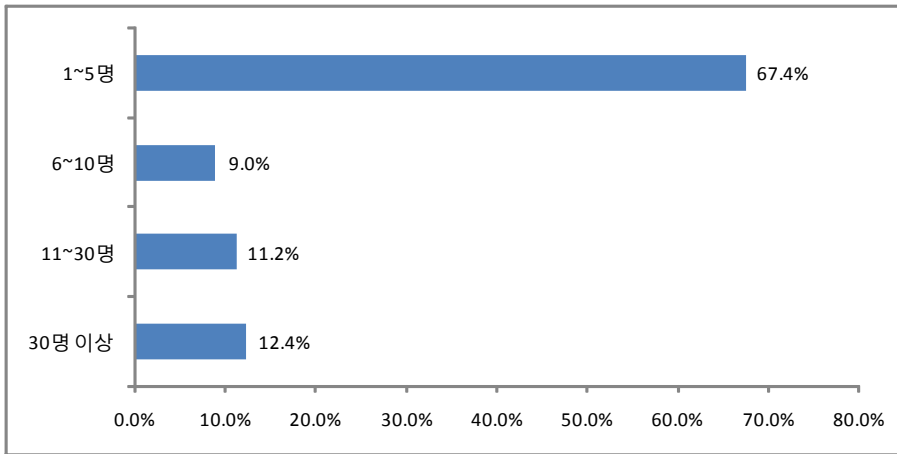


환경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탄소펀드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금융에 투자계획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 회사 중 58.8%가 “계획 없음”이라 답함으로써 14, 15 및 16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타 환경경영 분야에 비해 탄소 펀드 등의 환경금융에 대한 정보 콘텐츠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이해가 낮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회사의 경우 응답 회사 중 50% 정도의 회사가 검토 중이거나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조사되어 탄소 펀드 등의 녹색펀드를 신 산업으로서의 기회로 인식하고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금융업을 제외하고는 업종별로 탄소펀드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금융 투자계획 여부와 관련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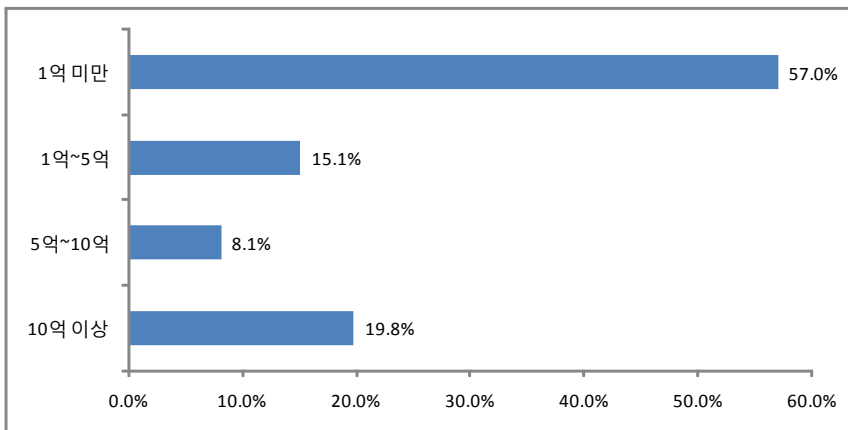
18-1.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 환경관련 조직 인원



환경관련 조직의 규모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조직 인원이 없다는 무응답으로 답한 회사가 전체 조사대상 회사 중 15.2%로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 회사 중에서는 67.4%가 5명 이내라고 답함으로써 조직 인원 측면에서의 기업의 대응은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관련조직이 30명 이상이라고 답한 회사는 12.4%에 달하였으며, 응답 회사 대부분이 에너지 및 자원 업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18-2. 기후변화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 – 환경관련 조직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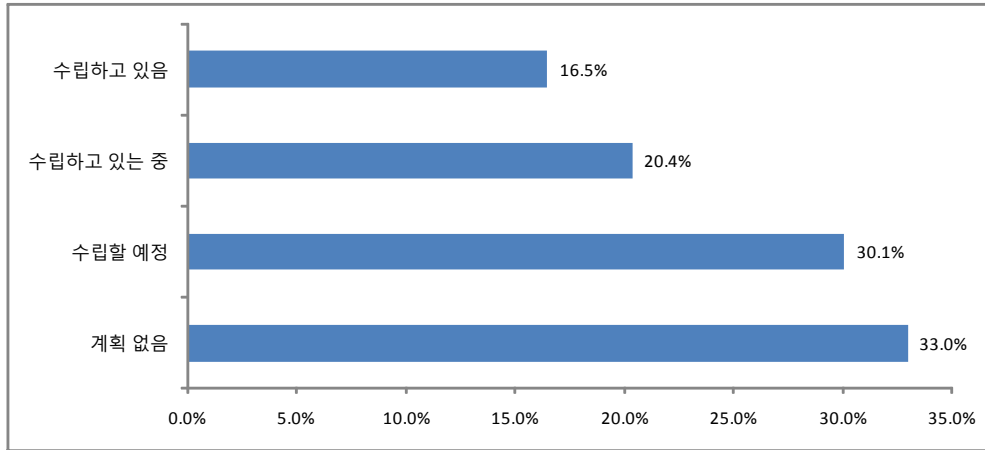


환경 관련 조직의 예산 규모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서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다고 무응답으로 답한 회사가 18.1%에 달하였으며, 응답한 회사 중에서도 57%는 1억 미만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환경관련 조직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환경관련 조직의 예산이 10억 이상이라고 답한 회사는 20%에 달하였으며, 응답 회사 대부분은 에너지/자원 및 화학/제지 업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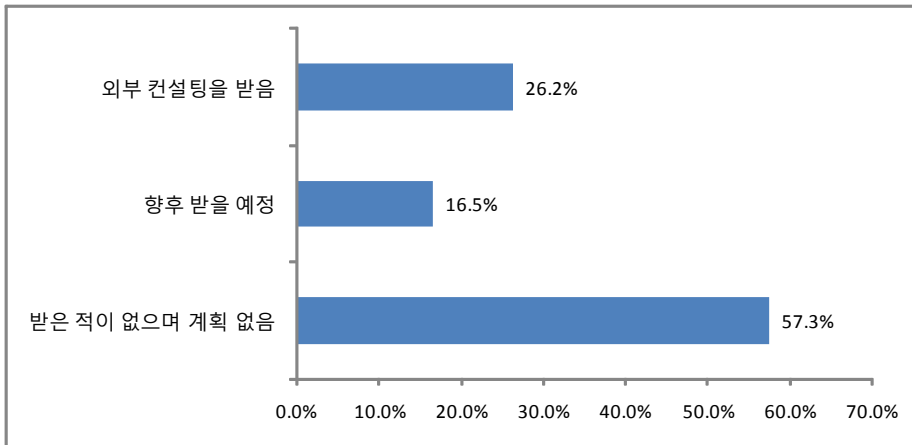
V. 환경경영과 기업의 준비

19.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준비 – 대응계획 수립 여부



녹색성장 및 환경경영에 대해 향후 대응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에 67% 정도는 수립하였거나 수립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나,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하는 기업은 거의 대부분이 에너지/자원 및 화학/제지 업종이었으며, 기타 업종은 상대적으로 대응 계획 수립 필요성을 약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환경경영에 대한 기업의 준비 – 외부 컨설팅 경험 및 계획 여부



환경경영을 위하여 외부 컨설팅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회사 중 57.35 가 “받은 적이 없으며 계획이 없다”라고 답함으로써 현재까지는 녹색성장에 따른 기업환경의 변화가 해당 회사에 미칠 영향을 상당 수준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있는 회사는 대부분이 에너지/자원 및 화학/제지 등의 녹색성장에 따른 환경규제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었다.

다만 “향후 받을 예정”이라고 응답한 회사(16.5%) 중 일반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속한 회사가 각각 23.5% 및 29.4%로 나타난 바, 에너지/자원 및 화학/제지 회사는 별도로 이들 회사에 대한 차별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